



아니냐고
응하나 다들아냐고



다들 물어봐 미디어 교육이 영상제작 교육 아니냐고



S#

000

들어가는 말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일동

제목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저희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 있으면 이런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크리에이터 교육 해주세요! 편집 배우고 싶어요. 촬영 장비 알려주세요.”와 같은 기술 교육 위주의 요청입니다. 물론 기술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 교육은 더 큰 범위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영상 제작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영상 교육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문의도 받습니다. “미디어교육 해주세요! 대신 촬영 편집 교육 등 제작 교육은 안 해주셔도 돼요. 기술 수업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주시곤 하는데, 저희는 “기술 교육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앵글을 정하는지에 따라 폭력적 앵글이 될 수 있음을,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 등을 알리며 윤리적 촬영 방법을 연구합니다. 편집교육을 통해서는 사건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 어떠한 관점으로 상황을 봐야하는지 참여자와 함께 고민하고 사고해 갑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 참여자와 소통하고 성장했습니다. 평등한 약속을 통해 대화의 방식을 바꾸고, 사무국의 전문성 바탕으로 참여자를 이해하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인된 미디어 격차 문제, 공동체 해체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으며 상황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안 교육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활동에 이토록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는 것은 단순히 미디어 관련 기관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미디어는 쉽게 접하지만 영향력이 큰 만큼 제작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세밀한 관찰로 맞춤형 미디어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기관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고민하며 지역의 미디어 문화를 잘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목차

S#

000

들어가는 말

S#

001

**일상 속
미디어**

6p

성평등한 문화 생활화

길고 느린 발걸음
짧고 굵은 발걸음
매일 걷는 발걸음

강릉여성성의 전화/
시소 성문화센터/
활동가

S#

002

**동행하는
미디어**

16p

대상에 대한 이해

어서 옵SHOW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강릉건강가정다문화센터

S#

003

**연결하는
미디어**

22p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강릉생명의숲

S#

004

**연립하는
미디어**

28p

청소년 교육의 활성화

S#

005

**지속 가능한
미디어**

34p

지역 생태계 구축

S#

006

마무리 하며

46p



S#

001

일상 속 미디어

성평등한 문화 생활화

길고 느린 발걸음
짧고 굵은 발걸음
매일 걷는 발걸음

길고 느린 발걸음

강릉시 성평등 확산을 위한 미디어성평등 활동가 지원체계 구축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는 마셜 매크루언의 말처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감각하고 사고하며 가치관을 형성한다. 조작과 휴대가 간편해진 미디어 장치들은 인간의 자기 표출 욕구를 자극하는 동시에 가속한다. 쏟아지는 미디어와 알고리즘의 추천에 무방비 상태로 24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의 가치관이 실시간으로 나의 감각 기관을 통해 흘러들어와 나의 지각 방식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가 소비 하는 미디어가 나의 정체성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를 소비해야 할 것인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올바른 판단력’과 ‘윤리’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기기’ 교육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주어진 다양한 문제와 과제 중 성평등을 주제로 미디어의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스쿨 미투 등 그릇된 젠더 의식과 고정관념, 재현된 이미지 생산과 무비판적 해석 방식, 권력형 집단 자의식 과잉으로 인한 끊이지 않는 성범죄 사고를 보며, 무엇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길잡이 교육이 필요함을 함께 절감했다.

이런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교원 집단의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까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강릉여성의전화><시소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미디어및성평등 한은진 활동가> 이 지역 내 관련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연구를 약 1여 년에 걸쳐 진행하였다.

지역 기관 협치 첫발

각자의 속성을 보유한 채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쩌면 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일이 업무 속도 면에서 훨씬 편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연말이 터지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좀 더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연결고리가 필요함을 인지했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

“<2018 위드유> 가정폭력 영화를 상영하면서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와 처음 만났다. 업무상 대부분 성인 대상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생각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었다. 이번 연구 모임을 통해 기존 업무 이외에 다방면으로 성평등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각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함께하는 건 장기적으로 성평등 문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밤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아주 작은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고 있다. (강릉여성의전화, 민현정 대표)”

“학교에 미디어 교육을 나갔을 때 청소년들이 아무렇지 않게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와 성평등 두 분야에서 모두 활

동하다보니 두 분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걸 절실하게 느낀다. 이제 시작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해보려 한다. (미디어및성평등 한은진 활동가)”

“평소 시청각 자료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육이 많았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안이 왔을 때 지역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일만으로도 보람 있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와 관련한 성평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일상 속 미디어에서 많은 성불평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며 미디어가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행히 이때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성평등 의식이 담론화 되어 선순환 되길 바란다.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김효임)”

성평등 미디어 교육 사업 내용 및 결과

이번 협치 사업은 2019년 1월 모임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만든 양적 조사 설문지 문항을 이용했다. 교사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을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무작위로 조사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사회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경험, 학교- 가족- 사회생활, 성인지, 성희롱 및 성폭력, 일반사항 등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87개의 질문 측정 도구 105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득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것은 교사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원들이 성평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성평등 문화 확산은 논리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선 예산-지원 조직-활동가의 협치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평등 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야 전문가와 학생 그리고 외부 여성주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미디어리터

러시에 대한 분야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비판적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키워야 한다.

바로 지금, 미디어와 성평등 문화를 위한 발걸음

코로나 19로 인해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학교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수업 전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집중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권장되는 시대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에 까지 노출되어 있다. 이토록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을 비판해야 할까? 방법론은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미디어와 성평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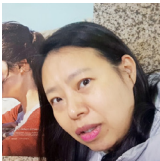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다. 미디어로 인해 분절될 수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도 있다. 연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강릉여

성의전화><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미디어및성평등 한은진 활동가>의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의 가능성의 문을 함께 열었다. 전 세대의 미디어 성평등 문화를 위해 정책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서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분화 되어야 한다. 판은 이미 뒤집혔다. 지금이 아니며 도대체 언제 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냈을 때 서로 다른 분야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다.
연대를 통해 지칠 때마다 서로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었다.”*

강릉여성성의전화 민현정대표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되면 혐오, 차별, 폭력적인 문화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시소청소년성문화센터 김효임 센터장



“교육은 힘이 있다. 지금, 여기, 나, 우리부터 해야 한다.”

미디어성평등활동가 한은진

짧고 굵은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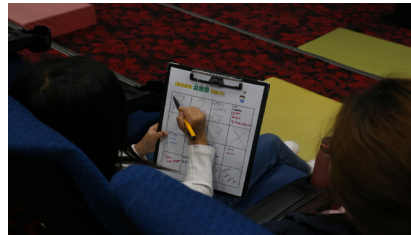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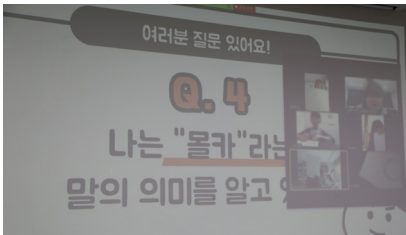
성평등한 미디어 활동

실시간 온라인 강의 초등미디어 성교육

- 대상 초등 고학년 6인
- 기간 2020년 4월/ 5월
- 회차 1시간 * 2회차
- 내용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는 잘못된 성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디지털 원어민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봅니다.

체험 프로그램 토토즐 <알쏭달쏭 성평등 이야기>

- 대상 아동과 양육자
- 기간 2019년 5월/7월/9월/10월/11월
- 회차 1.5시간 * 5회차
- 내용 다양한 놀이와 미디어리터러시로 알아보는 성평등 교육입니다. 성고정관념이 담긴 미디어 살펴보기, 우리끼리 만드는 약속문을 통해 성평등을 배워갑니다.



“나는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처받은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을 그래프로 그리며 서로에게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내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지역 감독님들의 참석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역 참여자들은 책을 만든 남성페미니스트 교사, 청소년 등의 참여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심심하다고 꽃이 되긴 싫은데

- 대상 여성청소년 8인
- 기간 2019년 5월 ~ 9월
- 회차 2시간 * 13차시
- 내용 청소년들이 여성으로 살아가며 불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포토에세이를 제작했습니다. 청소년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젠더토크 콘서트

- 대상 강릉시민
- 기간 2018년
- 회차 1회
- 내용 METOO 운동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다큐멘터리 <여자답게 싸워라>, <육체미 소동>상영 후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네 가지의 대표 활동을 바탕으로 짧고 굵은 발걸음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백서를 참고해주세요.

매일 걷는 발걸음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평등함이 지구촌에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편해 보았습니다."

평등을 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성고중 상담사

- 미디어센터가 성평등해야 하는 이유
- 상담 안내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성평등약속문
※ 미디어센터에서 교육 1차시 확대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성평등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들

- 토로줄 (19년도)
- 여성활동가 협의체 진행/여성청소년 모임
- 아동 미디어티러시
- 성평등위원회의 신설

평등 주제의 수업 중 참가자들이 느끼는 말.말.말
미디어센터 위치, 홈페이지, 번호 등

2020년 6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성평등 책자가 탄생하였습니다.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로비에도 비치해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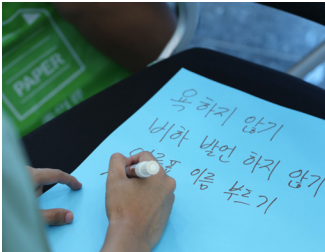
미디어교육이 시작되면 성평등 책자를 전체 참여자에게 배포하고, 크게 두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성고충 상담원

성고충 상담원 2인의 이름, 직책, 인물 사진 및 사건 발생 시 상담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② 평등문화약속문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 항목별 사례를 예시로 들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S#

002

동행하는 미디어

대상별 맞춤 지원

어서옵SHOW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미디어센터는 필요에 의해 직원들이 미디어 활동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옹SHOW>는 자녀들의 방학으로 교육에 나올 수 없게 된 참여자들을 위해 급작스럽게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수업이 끝난 후 영상제작 진행시 기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개설 되었습니다.

지금은 편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실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자인 사무국 구성으로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어서 올SHOW

강릉시 내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자립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여를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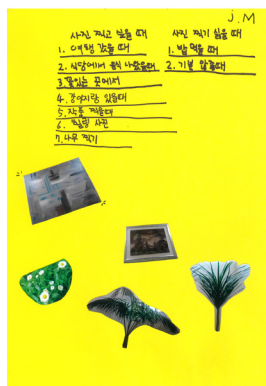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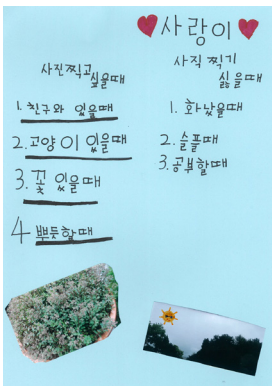


교육 도중 육아를 맡고 있는 여성들이 자녀들의 방학으로 수업을 참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참여자들이 교육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아동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진행이었지만, 매주 2회 총 네 번을 와야 하는 자녀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게 교육에 힘썼습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이 잦은 세대인 만큼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기획하였고, 리더로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볼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방학 특강 1차시

순서	내용
1 보물 찾기 시간! 숨겨진 미디어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관에 숨겨둔 미디어 매체를 찾아 빙고판을 완성해봅시다
2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예의가 있다고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카메라. 내가 망가뜨리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어요.
3 어린이를 위한 동의 1탄. 어린이를 위한 경계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모두가 같은가요? 나는 안는 걸 좋아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안아도 되나요?
4 활동!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동의는 모든 부분을 찍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찍어도 되는지 확인해봐요. • 사진을 찍어요! 다 찍은 사람은 선생님에게 인화해 달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종이에 촬영한 것을 붙이고 나를 소개 해봐요.
5 지금은 찍어도 되지만 이럴 땐 싫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상황별 촬영이 가능한 상황과 안 되는 상황 만 들기 • 여러분들은 촬영하기 싫을 때 얼마든지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미디어교육을 이수한 수강생과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교육을 이수하였지만 여전히 미디어는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수강생의 이야기를 듣고 미디어센터 스태프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이후 미디어 활동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에게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미디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촬영·편집에 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 직원들을 찾아오면 이런 요청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제작지원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편집 수업 때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카메라 조작법 교육을 들었는데, 모두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선마이크는 카메라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은요. 영상제작자 및 미디어활동가, 미디어교육자 등의 활동을 해온 분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로 방문해주세요. :)



S#

003

연결하는 미디어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사업 진행 방식의 전환

강릉생명의숲

생명의 숲은 '숲'을 전문 주제로 숲 교육과 숲 조성 등
시민의 힘으로 숲을 지키고 복원하는 NPO 단체다.

강릉 생명의 숲은 1999년 창립하여
건강한 숲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에코 네임

4년 차 활동가 이혜림은 호두라는 에코 네임을 쓴다. 생명의 숲에서는 굴참나무 살구 홍시 등 직급 없이 서로를 에코 네임으로 부른다.

청소년 기후 위기 결석 시위

2018년 스웨덴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위기에 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매주 금요일 스웨덴 국회 의사당 앞에서 결석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후 툰베리의 운동에 공감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기후 행동에 동참하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 확산되었고, 그레타 툰베리는 1년간 전 세계를 돌며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절실함을 알렸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청소년기후행동이 시작되었고, 그 활동에 동참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지역적인 논의

숲 위기와 환경으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숲과 생태환경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이런 주제로 지역에서 같이 논의를 위해 고군분투를 시작했다. 우리 지역의 강릉시영상

미디어센터를 찾아가 지역, 환경, 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고민을 나눈 끝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푹푹캠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와 2박 3일간 진행한 캠프 형식의 교육이었다. 푹푹이라는 단어는 숲을 생각하면 ‘푹푹하다’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다. 두 기관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기획이 정말 지역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결과를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다. 이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고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일방적인 교육과 다르게, 환경을 주제로 참여자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책을 만들고 싶거나 영상을 찍고 싶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2박 3일 더운 날씨에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골몰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청소년의 의견이 스스로 발화되고 영상을 통해 확산력을 가진 좋은 협업 사례로 남았다.

코로나 19

계속 캠프 형식으로 이어가려 했으나 코로나 19로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다. 새로운 고민이었다. 숲 교육은 자연과 교감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생각했다. 잠시 기다리자 생각했지만 팬데믹 현상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다. 단순히 교육 영상 송출과 교육 관련 KIT 제공 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하나의 기관이 가진 역량 한계나 확산성에 있어서 공익활동이나 시민 활동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그룹 창작 지원

숲 관련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을 모았다. 모두 모이지 않아도 팀마다 주제가 있으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제작하는 방식이다. 자신들이 느낀 숲과 환경의 소중함이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을 찾고 표현했다. 그동안의 교육 방식을 거꾸로 진행한 것이다. 청소년이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기관에 요청하고 장비를 대여해줬다. 담당자들은 각 팀의 작업 전 과정을 팔로우하며 뒤에서 지원했다.

연결의 선순환

너무 바쁜 세상이다. 삶에는 중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 처음 선택하는 게 자신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그래서 연

결고리가 많아져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높이기 위해 생명의 숲을 통해 온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기관과 연결 고리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다. 생명의 숲을 통해 강릉 시영상미디어센터를 알게 된 사람도 많다. 단순히 강사 파견과 같은 연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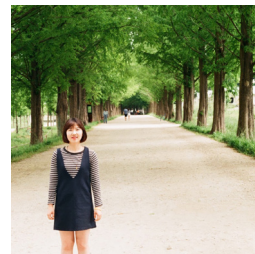
공식적 인증 교육으로 확산

산림 교육은 산림청을 통해 국가에서 인증 받을 수 있다. 숲에서 휴식하고, 생태 감수성이 증진되고, 숲 관련 일자리에 관심을 가졌는가 등 산림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인증해 주는 것이다. 두 단체가 만나 숲 영상 교육을 진행한 사례로만 그치지 않고, 산림 교육의 하나로 이런 협력 프로그램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재 인증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 서류상 인증이라는 단순한 게 이유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대상자에게는 선택권을 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이때 산림 미디어 교육을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기관에도 공식적으로 좋은 성과가 되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의 생명의 숲이나 미디어 센터에 정리된 가이드북을 만들

어서 보내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의 가능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공동체를 위한 빗장 열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각종 서류와 발표 자료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소모적이긴 하다. 필요를 느끼는 단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 센터와 협력 과정을 거칠 땐 긴 대화의 과정을 통해 언어도 통일이 되고 목적의 결과나 온도가 맞아 사업 진행시 서로의 이해도가 높았다. 평소에도 기관끼리 진정성 있는 교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는 담당자의 직무 스타일에 따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 현 실무자들이 손에 쥐고만 있지 않고 체계를 만들어 바탄을 넘겨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해오며 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가 제작 지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기관에서도 한 번의 이벤트성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미디어라는 매개로 작업도 해보고 설득도 보고 작업도 해보면 좋겠다.



강릉생명의숲
이혜림



S#

004

연립하는 미디어

청소년 교육

연립 (聯立) [명사] 여럿이 어울려 섬. 또는 그렇게 서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

연립하는 미디어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 안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창작을 통한 협업과 서열 없는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각자 맡은 바를 통해 연립한다는 건, 좋아하는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 알아나가고 탄탄한 공동체를 구성해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일이다. 결국엔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이 잘 맞는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연립하겠지만, 미디어 교육을 통해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고립이나 단순 자립이 아닌 연립을 위해 어떻게 미디어 교육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함께 성장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미디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습득하게 해주고자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힘써왔다.

특히 2019년 진행한 비숙박 캠프형 미디어 교육 ‘푹푹 캠프’와 명륜고 교내 동아리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립하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실제 미디어 교육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 영상을 만들어 가는 동안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18살 패랭 고양이의 이야기

환경에 관심 많은 헤어디자이너 겸 환경보호 운동가를 꿈꾸는 18살 곽한나는 초등학교 때 미디어 수업을 처음으로 접했다. 이후 중학교 1학년 방과 후 활동으로 미디어 교육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풋풋 프로젝트라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광고를 촬영하게 되는데, 자연과 환경에 대하여 배우며 환경 공익광고도 찍었고, 교육 밖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패랭 고양이라는 닉네임은 이때 생겨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프로젝트 초반엔 울기도 많이 울었다. 평소 낮가림이 있는 편이라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이 어려운 성격이었다. 그러나 미디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성별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본명을 부르는 대신 에코네임을 부르고 존댓말 대신 반말을 쓰는 경험이 그러했다. 언니, 오빠, 선생님과 같은 서열이 느껴지는 호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상대의 직위에 상관없이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창작을 위한 이야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올 수 있게 해줬다. 사회 통념상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다. 또 의견을 낼 때는 벽을 잠깐이라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칫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워도 다양한 시도와 과정을 거치며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동시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내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함께 영상을 만들어 가는 동안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패랭 고양이는 이 동아리를 통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세상을 위한 환경 운동을 실천하게 된다. 단순히 교내 청소년끼리의 연립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개인 소셜 계정에 환경일기를 올리고 있다. 무조건 행동을 앞세우기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노력하여 지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내 글을 보는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같이 실천해 나가보자.’라는 의미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를 만난 패랭 고양이가 곽한나는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운 분리수거법을 실천하거나

대나무 칫솔을 사러 간다. 가급적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텀블러를 더 자주 들고 다니고 있다. 동아리 하나가 주는 깨달음은 정말 많았다. 환경 관련된 청소년 공동체 조직에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기르고 굳건하게 나아갈 힘을 얻었다. 지금은 미디어 교육 하반기 프로그램에서 피디를 하며 영화를 찍고 있다.

<만드는 사람의 책임을 생각한다> 명륜고 미디어 동아리 '미디어팀' 김정빈, 김준석, 조세형의 이야기

명륜고 2학년 김정빈, 김준석, 조세형은 교내 미디어 동아리 '미디어팀'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미디어팀'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여러 분야의 영상을 만들고 미디어 제작 관련 실력을 키우는 동아리다. 총 11명의 회원 중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세 명은 각자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다. 현재 '미디어팀' 동아리 차장 김정빈은 초등학교 시절 예능을 좋아하면서 영상 제작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조세형은 교과 연계로 도덕 시간에 만든 폭력 예방 UCC가 상을 받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김준석은 영상 촬영보다는 유튜브 편집 쪽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2년간 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및 생명의 숲 프로젝트나 다양한 상영회

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미디어팀은 색 보정이나 컷 편집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재미만 추구하던 영상 제작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 가볍게 공유하던 영상들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미디어 제작의 윤리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영상인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센터 교육의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꼽고 있었다. 미디어가 어린 시절부터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만드는 영상 역시 사회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주변 친구들이 영상 작업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하거나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미디어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김준석은 항공 관련 꿈을 이룬 후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한다.



곽한나



김정빈



김준석



조세형



S#

005

지속 가능한 미디어

지역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각자가 가진 입장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입장과 센터의 입장에서 각각 부딪치는 벽의 결이 다를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센터 입장에서 사업성과와 서류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내외부적으로 담당자 간 소통과 설득의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방향이기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옳은 일이 아닌 필요한 일이다. 센터이기에 가능한 일부터 찾아 우선으로 해나가고 있다.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파이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일이 그렇다.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서로 소통의 장을 열어두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실제 센터와 연결 고리가 되어 지속해서 미디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세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김건영

2019 청소년연합동아리 장면아홉팀 단편영화 '이상동몽' 감독
2019 함께여는 꿈의학교 청소년영화제 프로그래머
2020 찾아가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보조강사



박송희

힙합초급반 : RAP & Beat Making 참여자
단편영화 <81> 감독
2020 청소년 환경&미디어 풋풋프로젝트 참여자



조남현

2020 시민영상제작 교육 진행
2020 청소년 환경&미디어 풋풋프로젝트 교육진행
예술강사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과정 교육진행
고성군 토성면 마을라디오 제작교육

Q.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송희 지역에서는 영상 쪽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영화 제작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미디어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영화를 만들고 있고 장르적 방향을 하고 있는 조남현입니다. 지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시작했고, 현재는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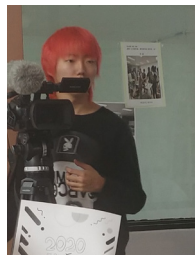
김건영 영화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김건영입니다.

Q. 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박송희 센터의 미디어 교육 중 힙합 수업을 들으려고 왔었어요. 당시 고 3 입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어요. 평소 작사 작곡에 관심이 있었는데, 후배의 소개로 오게 됐습니다.

조남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방송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영상미디어센터엔 학교 형 따라왔습니다.

김건영 학교에서 방송부가 폐지 돼서 영상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한 동아리였어요. 딱히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디어센터가 나오더군요. 무작정 도움 요청 전화를 했는데, 진짜 교육을 와줬죠.



Q. 센터와 계속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박승희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거죠. 당시에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됐는데 고3때 센터에서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프리덤이라는 웹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프리덤은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으로 겪었던 일들을 담고 싶었어요. 살면서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영상을 만든다는 거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다음 해 2월에 센터 직원의 권유로 81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상태라 후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교에 갔다가 종강하고 돌아와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센터에 다시 드나들게 됐어요.

조남현 뭔가 남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일에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무대 앞에 서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무대 뒤에 카메라 뒤에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었습니다. 당시 센터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어떤 한 존재가 난감하거나 뭔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공유해하는 일이 재밌었어요. 청소년 예술 활동 위주로 여러 가지를 하는 세손가락의 활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대학을 1년 이상 올라가 있었고, 군대도 다녀오면서 마음이 무뎠해졌던 거 같아요. 군대 안에서 우울감이나 열등감도 생겼었고요. 내가 창작이나 영화를 만들어도 되는 사람인지와 같은 나에 대한 질문의 영역이 커졌던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지금 시점에 이르렀을 때, 센터에서 교육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안에서 꾸준히 미디어 작업을 해왔던지라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는 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김건영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 미디어 관련 기술 수업만 듣는 줄 알았어요. 영상 촬영과 편집만 하는 게 미디어 교육인 줄 알았는데, 당시 수업 주제가 평등이었습니다. 신기했더군요.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배운 것 같아요. 직접 편집을 하면서 어떤 영상은 악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 같아요. 그때 이후로 센터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3년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센터의 제안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Q. 미디어 센터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박송희 그동안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순종적인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재밌고 좋아한다 생각하면 밀어붙이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센터에서 제작이나 교육 제안도 해주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면서 미디어와 저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센터를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많은데요. 두번째 작품은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첫번째 작품 제작 지원은 미디어센터에서 지원받아 후반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고 동아리를 하면서 나와 같은 청각 장애뿐 아니라 다른 장애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만든 영화 GV를 하며 제가 가진 편견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장애인인 면서도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에 따라가며 살아왔었다, 라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죠. 아마 센터 직원의 권유가 없었다면 81이라는 영화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교육 전엔 성평등 약속문을 읽는데,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도 다양한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모로 얻어가는 것이 많아요.

조남현 군대에 있는 동안 바깥에 이제 더는 내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방황하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안부 전화를 해주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줘서 내 존재가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졌어요. 기관이라는 게 운영 주체에 따라 기관이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편한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센터는 단순한 교육의 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성하는 공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김건영 정말 많은 교육을 들었어요. 동아리 교육 2년에 촬영, 색 보정, 시나리오 수업 등 많은 수업을 들었어요. 아마 센터에서 진행된 촬영 관련 수업은 거의 다 들었을 것이다. 저는 영상 제작이 너무 재미있어 진로도 바뀌었어요. 요즘은 센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어요. 또 교육 제안도 받아서 학교에 민주시민 교육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민주 시민 교육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내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열 명 남짓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건?

박송희 종강하고 집에 왔는데 때마침 강릉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디어에 무관한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었죠. 저는 현실과 계속 타협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작업은 하고 싶고, 빚은 내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처음엔 강릉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거리적인 부담감을 줄였던 거 같아요. 미디어 교육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센터 소개를 통해 생명의 숲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고민이 많아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지만, 수익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조남현 강릉에서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릉에 주로 있으면서 자주 어딘가 다녀오는 삶을 꿈꾸고 있어요. 얼마 전 지역영화상영공동체 ‘씨네마실’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제작한 영화 크리스마스의 바다를 상영하고 첫 GV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씨네마실 같은 작업은 너무 좋고, 반갑고,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응원이 되는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미디어가 지속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직업인의 마인드로 전문적인 역할도 해주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가 시청자에게 가 닿을 때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품질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기술적 노하우도 쌓아야 하죠. 아쉽지만 지역 내엔 아직 그런 현장이나 인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지속을 위한 관계성에 맞춘다면 미디어센터와 같은 중간 기관이나 지역 내 전문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인디 하우스에서 지역 영화인을 인터뷰하고 긴급 비용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처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디어 활동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건영 강릉에서 활동하기에는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이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현장 같은 곳을 가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안가고선 다양한 제작 경험을 배우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센터는 초급자 교육은 잘 되어 있고 중급자까지 가끔 영화 제작 교육 관창은 것 같아요. 상급자 교육은 사실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어떤 활동 방향과 센터에 바라는 점?

- 박송희**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를 만나고 인생의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처럼 진로에 고민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청소년 다섯 여섯 정도만 모여도 영상을 만들 기회를 준다면 홍보도 될 겸 좋지 않을까요.
- 조남현** 더 많은 사람이 영화나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센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미디어 콘텐츠 홍수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지점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확보해주고 지역 미디어 생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김건영** 저는 현재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고민하면 이걸 이렇지 않으나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정확하게 진로가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나 같은 친구들을 위해 센터가 그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1

강릉국제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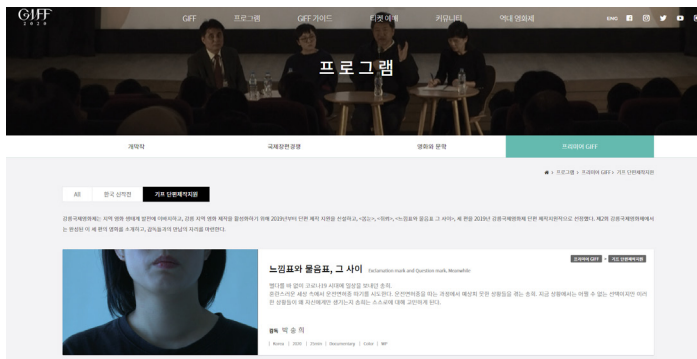
2019년 제 1회 강릉국제영화제 지역 영화 제작 지원 공모

제 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2019년 10월 28일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와 함께
강릉과 강원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강릉 지역 기반의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릉국제영화제 지역 영화 제작 지원

지원 내용: 단편영화 최대 3편
편당 500만원~1000만원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지역 영화제작 지원 공모 선정
편안 다큐멘터리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

감독 박송희
연출부 김지연
촬영, 편집 김건영
PD 유민아



생태계2

강원영상위

<이 달의 강원영화인> 제작

도내 유일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신영극장) 대관 및 활용
강원도 내 활동 중인 기성 영화인 인터뷰 및 홍보영상물 제작

준비, 촬영, 편집 등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과정 및 운영

5분 이내 강원 영화인의 영화 관련 활동 기록
인터뷰 및 영상 아카이빙, 제작 후
매월 강원영상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 업로드



생태계3

강릉영화인 긴급지원 특별상영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 영화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긴급지원 특별상영회

2020년

총 18편, 4섹션 4일간 상영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강릉독립영화예술극장 신영,
강릉국제영화제,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생태계4 인디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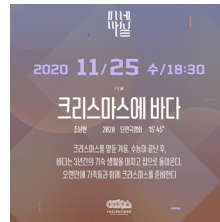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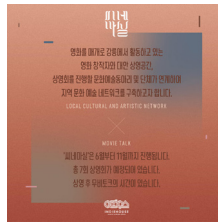
강릉독립영화공동체 상영회 <씨네마실>

2020년

지역 영화 창작자, 예술문화 동아리,
문화예술 공유 공간 활용으로 영화 상영, 무비토크, 영화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독립영화도시 강릉'이라는 고유한 지역 콘텐츠 향유 문화 형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S#

006

마무리하며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일동

에 따라 강원도 영동 유일의 영상미디어센터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의식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거점기관이란?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결과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이와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디지털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디어센터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미디어 활동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발전적인 미디어 문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끝으로 이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박은희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 남깁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자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미디어센터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리해주신 덕분에 시민들과 기관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구성 유민아

글작성 박은희 유민아

인터뷰 김수민 최승철 민현정 김효임

한은진 곽한나 김정빈 조세형

김준석 이해림 김건영 박송희 조남현

표지디자인 심유리

책디자인 ctd studio